

## 41 |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흉곽출구증후군

|    |   |    |     |    |         |       |    |
|----|---|----|-----|----|---------|-------|----|
| 성별 | 남 | 나이 | 43세 | 직종 | 자동차 제조업 | 업무관련성 | 높음 |
|----|---|----|-----|----|---------|-------|----|

### 1 | 개 요

근로자 박○○은 2006년 11월 22일 ○○자동차 ○○공장 내에서 부품상자를 라인에 공급하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며 어깨와 허리를 다쳤다. 이후 왼쪽 어깨 및 겨드랑이 부위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2007년 1월 9일 요양 승인을 받았다. 증상의 호전이 더디고 혈행 장애, 손가락 피부색 변화 및 어깨 움직임 제한이 심해져 2007년 3월 ○○병원에서 흉곽출구증후군으로 판정 받았다.

### 2 |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박○○이 수행하였던 ○○자동차(주) ○○공장 플라스틱부 사출A반의 부품라인 공급작업은 랙에서 부품박스(5-15kg)를 대차에 싣고 라인에 공급하는 것이 주업무이며 부품이 적재된 파레트를 운반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하루에 700개 정도의 부품박스를 조립라인 랙에 공급하고 있었으며 부품박스의 무게 5kg이상, 부품랙의 상단 높이 1.5m로 높았다. 특히 오전 작업량이 많아 수작업으로 5m 정도의 거리를 걸어 부품박스를 운반하여 조립라인 랙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과거 1997년까지 오디오잭 부품상자의 경우 20kg의 중량물을 머리 높이까지 적재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실 작업 시간은 10시간 기준으로 6-7시간 정도로 수행하고 있었다.

###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박○○은 고혈압 등 기왕증은 없었다.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어깨에 부하가 가해지는 운동도 하지 않았다. 평소 전화기를 받는 습관은 특이사항 없었다. 재해발생 이전 2-3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좌측 손을 올릴 때 통증을 동반하여 손이 하얗게 바뀌는 증상이 있었다고 하였다. 재해발생 후 좌측 어깨 및 겨드랑이 부위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 및 신경주사를 맞고 근무하였다. 호전되지 않아 2006년 12월 중순 ○○정형외과에 입원, 경추부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 받았으나 어깨 및 손가락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정형외과로 전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역시 호전되지 않아 2007년 3월 말 ○○병원에서 MRI 및 혈관조영술을 받은 뒤 흉곽유출증후군 진단받고 2007년 5월 21일 수술을 받았다. 수술 소견은 전사각근과 소흉근이 비후되어 있으며, 두 근육이 상완신경총과 액와동맥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 오구전봉인대의 전부에 섬유화 띠가 정상구조물을 누르고 있어 전사각근과 소흉근과 섬유화띠를 풀어주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 4 결 론

근로자 박○○은

- ① 주관적인 증상(2-3년 전부터 좌측 팔 거상시에 손이 창백해지는 혈관증상), 진료기록지, MRI와 혈관조영술, 수술기록지 소견상 흉곽유출증후군 중 전사각근 증후군과 과외전 증후군에 해당되며,
- ② 상기 피 재해자의 주된 작업내용이 작업분석결과 1.5m 이상의 부품랙에서 다양한 무게의 부품상자(5~15kg 내외)를 어깨가 들리는 작업자세로 취급해야하는 작업이었으며,
- ③ 유해요인인 반복성, 부자연스런 자세 및 과도한 힘을 사용해야 하는 이상의 작업은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자세로 흉곽출구증후군의 원인에 합당하여,

이 근로자의 ‘좌측상완신경총손상, 좌측상완동맥압박, 혈액순환부전(흉곽출구증후군)’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